

성문종합영어 저자, 혜전 송성문

“국보·보물만 26건 달했던 선친, 통일되면 북에 박물관 꿈”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박)이 2년간 전면 개편해서 올해 초 재개관한 기증실의 특징은, 예술적으로 디자인된 의자에 앉아 휴식을 하면서 벽장에 진열된 기증 유물들과 맞은편 거대한 디스플레이에 상영되는 기증자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기증자들 중에 뜻밖에 익숙한 이름이 있다. 바로 혜전 송성문(1931~2011) 선생. 1970~90년대를 풍미한 대입용 영어 참고서 ‘성문종합영어’의 저자이자 기획자인 그가 무려 국보 4건과 보물 22건을 포함한 고서(古書)와 회화 등 46건 101점을 국박에 기증했던 것이다.

“고서 거품할 때마다 와서 보라고 하셨죠”
 “사실 아버지는 통일이 되면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에 박물관을 세우겠다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서뿐만 아니라 도자기 등 여러 유물을 수집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2003년 갑갑 선고를 받으시면서 그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시게 된 것이죠.” 혜전의 장남인 송철(65) 전 성문출판사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갖고 계셨어요. 태어나서 좋은 일 하나 해야 한다.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수집하신 것들에 대해) 다 사회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너희들이 철 들면 알아들겠지’ 하고 항상 설명을 하시곤 했어요. 오히려 우리 삼남매는 뭘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하시나 의아해했죠. 그래서 기증하실 때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

송 전 대표는 아버지가 보자기에 싸서 보관해 두었던 고서를 때마다 꺼내 바깥을 써서 거품을 하는 것을 지켜본 한 기억이 있다. “아버지가 이리 와서 보라고 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고서 같은 걸 아냐요? 그냥 시큰둥해 했는데 지푸 불려서 보라고 나중에 내가 관리해야 되니 보라고 하셨죠.” 그는 말했다. ‘기사가해계첩’은 재미있었습니다. 그건 그림들이 요즘 사람이 그린 것처럼 생생해서 놀라웠죠.” 그는 말했다. ‘기사가해계첩’은 국박에 기증된 국보 고서 중 하나로, 1719년 기해년에 숙종이 59세 되던 해, 기로소(연료한 고위 관료의 진복과 예우를 위한 기구)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화첩이다. 참석한 70세 이상의 퇴직 관리들의 초상화와 기념행사를 묘사한 그림들로 이루어진 화첩이다.

송 전 대표는 그렇다고 아버지가 자신이 수집하는 것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해주는 편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닌가 해요. 말씀이 많지 않으시고 희로애락을 별로 표현을 안 하시는 타입이었어요. 이북에서 월남을 하고 그러면서 생사 고비를 많이 넘기고 나서서 그런 것 같아요.”

혜전 송성문은 평북 정주(定州) 출신으로 중등학교를 우등 졸업한 후 북한 최고 대학인 김일성대 영문과를 공부했다. 그러나 출신성분 때문에 탈락하고 2년제 신의주 교원대에 들어갔다. 6·25전쟁이 일어났고 그해 11월 미군이 신의주에 진주했다. 그는 미군 앞에서 중학 영어교과서를 읽다가 통역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미군이 1·4 후퇴 때 평양에 그를 남겨놓고 퇴각했고 그는 갖은 고생을 하며 홀로 월남해 부산까지 내려갔다. 52년에 입대해 통역장교로 활약했다.

그후 혜전은 부산 동아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부산고교와 마산고교에서 차례로 교사로 일했는데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자 서울에서 출판사 대표가 찾아와 계약금 200만

아들 송철이 기억하는 아버지 송성문

70년대 일타 강사, 책 1000만부 팔려
고서·도자기 등 다양한 문화재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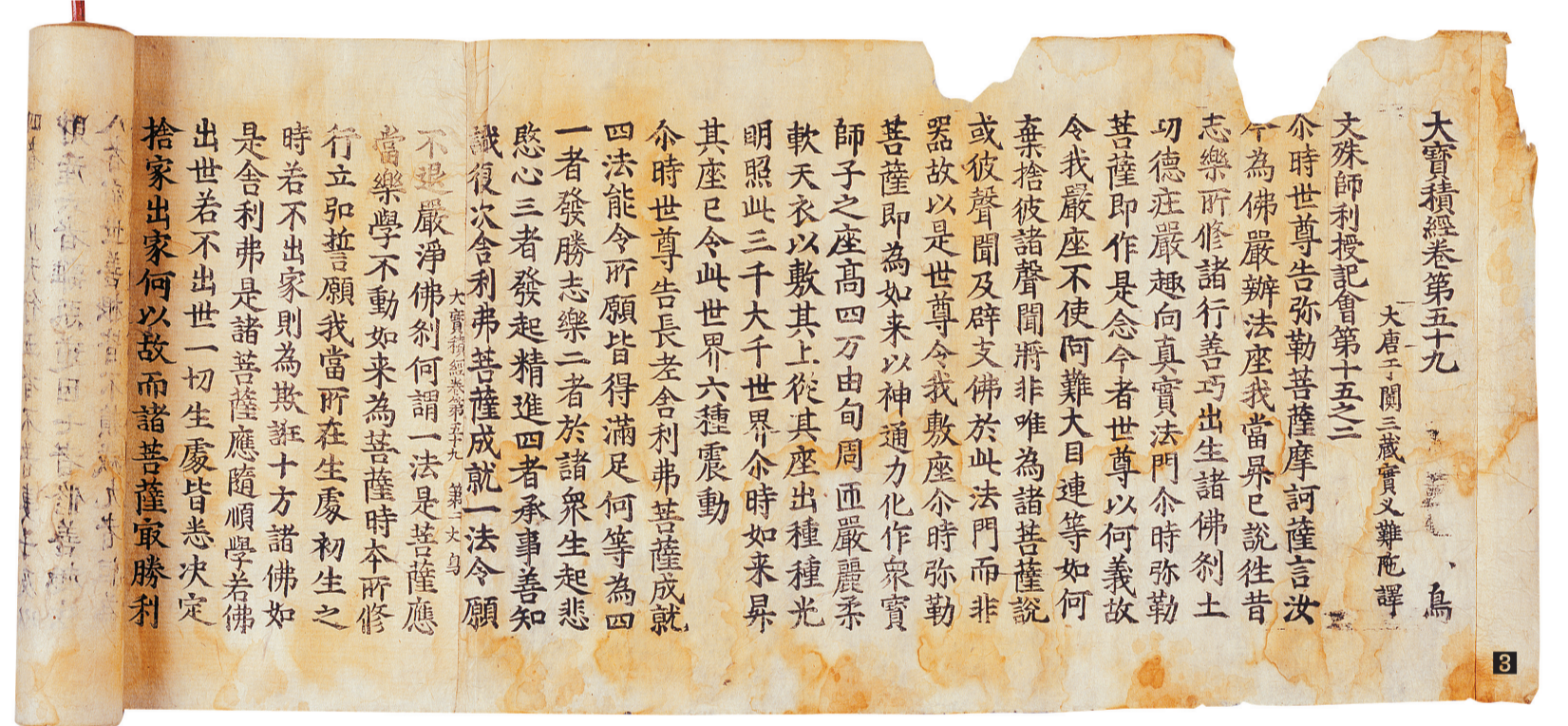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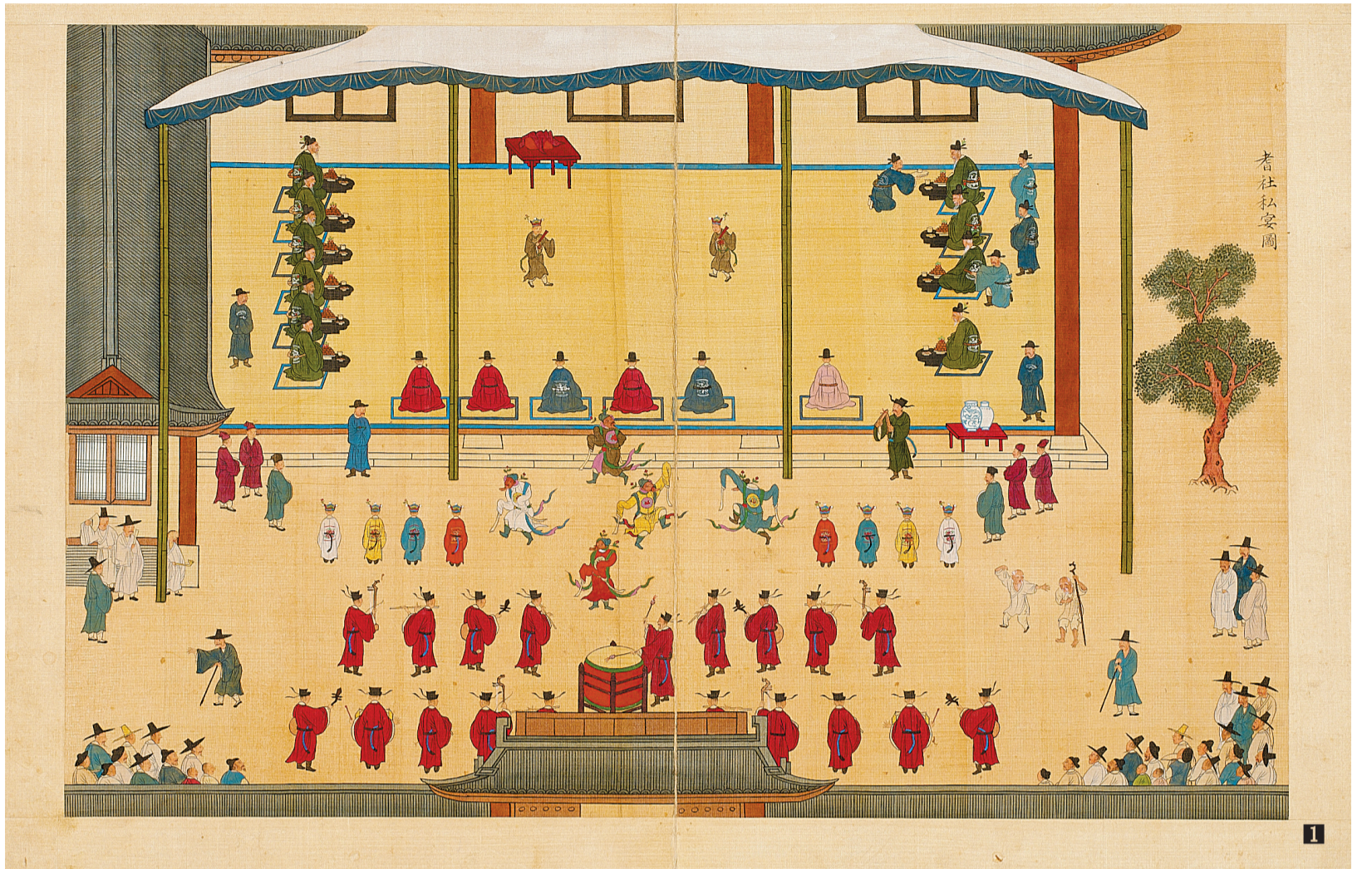
2003년 암선고 받고 유물 모두 기증
“생전 고서들 보존 의무감 가지셨다”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실 개편 재개관
기증자들 이야기 디스플레이에 상영



원과 1년 기한을 주며 영어 교재를 써 달라고 했다. 당시 200만 원은 집 한 채 값이었다. 이렇게 1967년에 탄생한 ‘정통 종합영어’가 대박을 쳤고 이것이 후에 ‘성문 종합영어’가 되었다. 그후 그는 서울에 올라와 서울고에서 교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종로 경복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요즘으로 치면 전국적으로 소문난 ‘영어 일타 강사’였다. 그후 76년에 자신의 출판사인 성문출판사를 만들어, ‘성문 종합영어’를 비롯한 성문 시리즈를 냈다. ‘성문 종합영어’는 2011년까지 10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비록 90년대에 대입 시험 제도가 바뀌고 경쟁 참고서가 늘어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해 2024년 현재는 소량만 팔리고 있으나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혜전은 학원 강사와 교재 출판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문화재 구입과 수석 취미에 썼다. 그렇게 수집한 11세기 고려시대 대승불교 경전 ‘대보적경’을 비롯한 국보 4건과 보물 22건, 운보 김기창의 그림 ‘동해일출도’ 등 총 46건 101점을 2003년 3월에 국박에 기증했다. 그 공로로 그해 6월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그는 또한 별세하기 1년 전인 2010년에 국박에 수석 한 점을 기증하기도 했다. 그는 생전에 “돌 안에 자연이 다 들어있다”며 수석 수집이 “군자(君子)의 마지막



혜전 송성문이 기증한 1 ‘기사가해계첩’ (조선 1719년, 국보). 2 ‘대보적경’ (고려 11세기, 국보). 3 수석과 함께 한 생전의 혜전. 아래는 ‘성문종합영어’ 표지.

혜전 송성문이 기증한 1 ‘기사가해계첩’ (조선 1719년, 국보). 2 ‘대보적경’ (고려 11세기, 국보). 3 수석과 함께 한 생전의 혜전. 아래는 ‘성문종합영어’ 표지. (사진 국립중앙박물관·송철)

평소 나서기 꺼려 기증도 대리인 통해 혜전의 수집과 기증이 특히 빛나는 것은 고서에서다. 그가 고서에 특히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말했다. “고서들이 자주 훼손되니까 더 없애지기 전에 빨리 보존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금속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지만 잘 보존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사 가면 집에 바르는 초배지를 고서를 뜯어서 사용하고 그랬어요. 안 믿기신다고요. 진짜입니다. 60년대 부산에서 살았는데, 이웃집들이 다 그러더군요. 당시에 고물상에 널린 게 옛 책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90년대 되니까 인사동 막걸리집 찾듯이 그걸 훑내내서 고서를 뜯어서 창틀에 붙여놓고 그랬죠.”

혜전은 별세 직전에 한 인터뷰에서 “그림이나 도자기는 가짜가 많지만 고서는 그리 쉽게 속일 수 없

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에 도둑이 든 적도 있지만 “값싼 것만 가져가고 고서는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못 알아봤을 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혜전은 ‘스타 강사’였던 것과 다르게 문화재 기증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2003년에 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도 대리인을 통해서였는데, 대리인은 바로 혜전의 고서 수집을 도운 고인쇄 전문가 전문(田文)이었다. 당시 국박 전시과장으로서 기증 업무를 담당했던 장상훈 현 국립진주박물관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대리인) 노신사의 손에는 국보 4건, 보물 22건 등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는 기증희망원이 들려 있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기증업무를 담당할 지체 반년도 안 된 필자로서는 흥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 한눈에 보기에 우리 나라 고인쇄 문화

제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긴 목록이었다.”

혜전은 자신의 애장품을 박물관에 기증하던 날에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던 날에도, 기증문화재 특별전이 열리던 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종종 국박에 찾아가 아버지의 기증품을 바라보며 부듯함을 느꼈다면서도 기증실에서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을 극구 사양한 송 전 대표는 “아마 이런 기질이 유전된 것 같다”며 웃었다.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혜전에 대해 장 관장은 “송성문 선생은 고귀한 한눈의 정신을 실천하셨고, 그럼에도 자신의 공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평했다.

/문소영 기자 symoon@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